

## 발전하고 있는 연변대학 도서관

강 문 범 | (姜文範, Jiang Wen Fan)

중국 연변대학교 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5만여 책의 조선문도서들은 북한도서 약 7만 책, 한국도서 약 8만 책, 연변과 중국의 기타 지방에서 출판된 조선문도서 약 10만 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변대학도서관의 오늘과 내일의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연변대학의 일반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변대학은 1949년 4월 1일에 창건된 조선족 인재를 양성을 위주로 하는 민족대학으로

서 오늘까지 5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전국 교육개혁의 열풍에 발을 맞추어 연변의 5개 대학 즉 연변대학, 연변의학원, 연변농학원, 연변사범과학고, 연변예술학원을 연합하여 새로운 연변대학으로 부상시켰습니다. 1997년도에는 한국의 독지가로 운영해 왔던 연변과학기술대학도 연변대학에 귀속되었습니다. 현재 연변대학은 사범학원, 이공학원, 인문사회과학원, 의학원, 농학원, 예술학원, 과학기술학원, 체육학원, 약학원, 한어연어학원, 성인교육학원 등 11개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부문으로는 동북아세아연구원, 민족연구원, 동방문화연구원, 장백산천연자원보호, 개발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연구원 산하에는 조선문제연구소, 조선어어문학연구소



등 30여 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어 여러 분야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에는 40여 개 석사학위과정과 4개의 박사학위과정을 겸비한 중국 국내에서 각종 학과가 비교적 구전하고 규모가

큰 민족특색이 있는 종합대학입니다.

지금 전교의 학생수는 성인교육학원 학생수를 제외하고 9200여 명이고, 교수·부교수가 676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변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경향으로 지금 연변대학도서관은 중심도서관, 의학원도서관, 농학원도서관, 예술학원도서관, 과학기술학원도서관 등 5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도서 총소장량은 약 146만 책입니다. 중심도서관에 82만 책, 의학도서관에 28만 책, 농학도서관에 20만 책, 예술학원도서관에 5만 책, 과학기술학원 도서관에 10만 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과학기술학원 도서관의 도서들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들어온 한국문, 서양

문도서들입니다.

도서들을 얻어도별로 나누어보면 중국문도서가 약 90만 책, 조선문도서가 25만 책, 영문도서가 17만 책, 일본문도서가 9만 책, 로어문도서가 5만 책입니다. 도서관 전체직원은 125명으로 중심도서관에 52명, 의학원도서관에 21명, 농학원도서관에 23명, 예술도서관에 16명, 과학기술학원도서관에 11명이 있습니다.

둘째, 조선학, 한국학 자료건설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5만 여 책의 조선문도서들은 북한도서 약 7만 책, 한국도서 약 8만 책, 연변과 중국의 기타 지방에서 출판된 조선문도서 약 10만 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도서들을 수집하고 가공 보관하는 과정에는 우리 선배님들의 수많은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조선학 한국학 자료센터가 걸어온 지난날을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1960년도에 열린 제 26차 국제동방학자대회에서 조선학을 정식으로 '동방학'의 한 학파로 인정한 이래 "조선학" 연구가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변대학도서관에서도 조선민족인재양성에 더 큰 힘을 아끼지하기 위해 1985년 10월부터 "조선학" 문헌자료센터를 설립하고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한 후에는 "조선학" 한국학문헌자료센터도 확대시켜 본격적인 자료건설을 하여 왔습니다. 이 자료들은 연변대학교의 교학과 과학연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학 한국학" 자료건설의 발전역사를 돌아볼 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1. 시작단계 (1950—1966) : 연변대학이 설립된 초 기인 1950년 6월 중앙교육부의 비준을 거쳐 연변대학 도서관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현재의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사범대학, 국가과학원 등의 도서관과 도서관자료교환계를 건립하여 도서관 자료 국제 교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단계에 우리 나라(중국)의 민족출판업도 아주 빠른 발전을 가져와 우리 연변은 물론 북경, 길림, 요녕, 흑룡강 등 성시(省과 市)에서도 조선문도서와 정기간행물출판사가 설립되어 많은 조선문자료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연변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국제와 국내의 유리한 시기를 붙여쥐고 대량의 조선

문헌출판문헌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선학문헌자료센터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2. 정지단계 (1967—1977) :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의 파피도 말미암아 연변대학

도서관과 북한 간에 17년 동안 발전되어온 도서관자료교환계도 중단되었고 중국 내의 민족출판업도 전례없는 파피를 받아 완전히 정지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적지않은 도서관자료들도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해 조선학문헌자료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3. 번영단계(1978—현재) : 우리 나라(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겪은 후 연변대학 "조선학 한국학" 문헌자료 건설은 전례없는 번영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중국 내의 조선문도서자료 출판업이 회복되어 도서관의 조선문헌자료의 수집이 대량으로 늘어났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북한 국가과학원 도서관 등 문화단체와 다시 장기적인 도서관자료교환계를 회복하였으며 또한 북한 국가출판물교류협회의 무상원조로 대량의 북한 도서관 자료들을 인입하였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기부터 연변

연변대학 도서관에서는 1999년 12월부터 한국 심보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6월쯤이면 시스템 운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수교하기 전 민간래왕의 유리한 시기와 수교한 후의 아주 좋은 형세를 이용하여 한국의 여러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여러 민간문화단체, 사업계, 기업체의 전문가와 학자 및 우호인사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많은 도서자료들을 인입해 들어왔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연변대학의 “조선학 한국학” 문헌자료중심은 전례없는 발전을 가져와 그 규모나 실력을 볼 때 동북(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소, 민족연구소, 조선언어문학연구소, 고적연구소, 조선의학연구소 등 연구기구도 자연히 “조선학 한국학” 자료를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대학의 “조선학 한국학” 문헌자료센터에는 이미 조선역사, 한국역사, 조선언어문학 등 방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경제학, 교육학, 법학 등 각 학과의 문헌자료가 비교적 구전하고 특색이 비교적 뚜렷한 실력있는 자료센터로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조선학 한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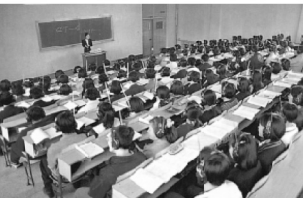
문헌자료센터에 소장된 “이조실록”, “조선전사”, “이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독립운동사”, “한국전사”, “역대한국본문대계”, “세계문학전집”,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경제자료”, “현대한국문학대계”, “조선이학대계” 등 10여 만 종의 도서와 “조선문학”, “청년문학”, “조선어보”, “조선어학”, “조선예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행공보”, “조선고고연구”, “역사과학” 등 50여 종의 경기간행물 및 5~60년대의 김일성 총장대학의 교과서, 참고서들은 학술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률도 높아 “조선학 한국학”의 연구 및 기타 방면의 연구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변대학 도서관의 발전전망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변대학도서관의 장래 발전목표는 이례와 같이 간략하여 개괄할 수 있습니다.

첫째 : 연변대학의 교학과 과학연구를 위해 복무하는 일류의 학술자료센터로 건설될 것입니다.

둘째 : 연변의 경제, 문화, 교육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자료센터로 꾸리겠습니다.

셋째 : 동북아시아 “금삼각” 지구 국제 협력 개발을 위해 열심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료센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상)에서는 물론 중국 전국적으로 보아도 제일 으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셋째, “조선학 한국학” 문헌자료의 특색에 관하여 연변대학 “조선학 한국학” 문헌자료센터의 형성과 발전은 연변대학 중점학과의 형성과 발전 및 민족교육의 발전과 갈라놓을 수 없는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지금 연변대학의 조선언어문학, 세계지역사, 국별사 등 학과는 국내에서 명쾌한 우세의 특색을 갖고 있는 중점학과로서 교학과 과학연구를 주요하게 “조선학 한국학” 자료센터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고 또한 조선문제연구

중심도서관과 각 학원도서관 간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독자들에게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처리를 하게 됩니다. 2004년 12월에 가서 전교 도서관의 전산화시스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 우리 나라 교육과 과학연구 인터넷을 통해 전국 및 국제적인 학술연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조선학"과 "한국학"의 자료가 전국 제1류인 도서관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변대학 도서관에서는 1999년 12월부터 한국 삼보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도서관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다가보니 전환 시스템 구축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2001년 1월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여 6월쯤이면 시스템 운영가능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심도서관과 각 학원도서관 간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독자들에게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처리를 하게 됩니다. 2004년 12월에 가서 전교 도서관의 전산화 시스템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중국은 남북한을 모두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남한을 한국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있다. 이 원고에서도 필자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표현한 것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의 허락을 받고 북한으로 고쳤다. 90

